

태풍에 동북호·주암호 쓰레기·흙탕물 가득

식수원 오염 '비상'

소석회 등 투입 탁도·산성도 낮추기

광주·전남지역의 상수도원인 동북호·주암호 등의 물이 태풍 '나리'가 물고온 쓰레기와 흙탕물로 뒤덮이면 식수원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19일 태풍이 지나간 뒤 동북호와 주암호에서 취수하는 물의 탁도(濁度)가 높아져 부유물을 제거하는 약품을 늘리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동북호(취수량: 일 27만4천t 동·북구 공급)에 1만5천m의 쓰레기가 밀려오면서 탁도가 평소 1.7~2NTU(1

NTU=증류수 1ℓ에 흙 1mg)에서 7~10NTU로 올라갔다.

상수도본부는 이 때문에 지난 18일부터 용연(하루 정수량 23만2천t)·지원(4만1천t)·덕남 정수장(20만t)에서 부유물을 쉽게 걸러낼 수 있게 응집시켜주는 약품 PAC(폴리염화알루미늄) 사용량을 t당 16ppm에서 22ppm으로 37% 늘렸다.

상수도본부는 또 물에서 냄새가 나게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주암·동북담 등지에서 표본검사를 하고

있다.

주암담(20만, 서·남·광산구 공급)도 계속 등지에서 흘러온 고사목·뱀질·수초·폐비닐·페트병 등 부유물이 500㎡ 유입되면서 탁도가 2NTU에서 17.9NTU까지 상승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광역상수도인 순천 별관(4만5천t)·화순(10만t)·장흥(20만t)·장성 평립(3만t) 정수장에 유입되는 주암·장흥·평립 담 물 탁도가 5.5~17NTU 까지 올라가자 PAC를 20~30% 더 투입하고 있다.

특히 산성이 강한 빗물이 유입되면서 정수장 산성도가 6.7~6.8pH로 평소보다 0.1~0.2pH 강해지자 알칼리성인 소석회를 살포, 먹는 물 기준치인 7pH로 낮추고 있다.

정수장 측은 또 매일 6회 실시하던 일반세균·납 등 5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10번으로 늘리고 소독을 강화했으며, 부유물을 수시로 걸러내고 있다.

앞서 여수의 경우 주암담에서 공급된 물의 탁도가 1천200~1천500NTU까지 급상승하자, 만 하루 동안 정수를 중단했으며, 시내 20여 곳의 학교 급식도 중단됐었다.

광주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탁도와 산성도를 낮추기 위한 PAC와 소석회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내 쓰레기 등 부유물을 제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11호 태풍 '나리'(NARI)의 뒤를, 쓰레기로 뒤덮인 주암호 상류 '복곡' 인근. 상수원인 동북호·주암호에서 물을 공급받는 광주·전남 정수장 측은 탁도(濁度)와 산성도를 낮추기 위해 약품 투입을 늘리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화순=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특히 산성이 강한 빗물이 유입되면서 정수장 산성도가 6.7~6.8pH로 평소보다 0.1~0.2pH 강해지자 알칼리성인 소석회를 살포, 먹는 물 기준치인 7pH로 낮추고 있다.

정수장 측은 또 매일 6회 실시하던 일반세균·납 등 5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10번으로 늘리고 소독을 강화했으며, 부유물을 수시로 걸러내고 있다.

앞서 여수의 경우 주암담에서 공급된 물의 탁도가 1천200~1천500NTU까지 급상승하자, 만 하루 동안 정수를 중단했으며, 시내 20여 곳의 학교 급식도 중단됐었다.

광주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탁도와 산성도를 낮추기 위한 PAC와 소석회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내 쓰레기 등 부유물을 제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항 어선 13척 불 타

피해액 80억 원 육박

19일 새벽 3시께 태풍을 피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다른 선박으로 옮겨붙으면서 모두 13척이 전소됐다.

또 선실에 있던 중국인 선원 이진창(37)씨가 왼쪽 팔에 1도 화상을 입고 제주도 중앙병원으로 후송됐다.

불이 나자 화학차 2대 등 소방차 15

대, 해양경찰 보트 4척과 의용소방대 등 300여 명이 동원돼 진화에 나서 화재발생 7시간 만인 오전 10시께 겨우 불길을 잡았으나 대부분 침몰한 뒤였다.

특히 도내에 단 1척의 소방전용 선박도 없는데다 해상으로 투입한 진압 장비도 해경의 소형 고무보트에 임시로 가설한 소형 펌프가 고작이어서 해상 및 항내 화재 진압 체계에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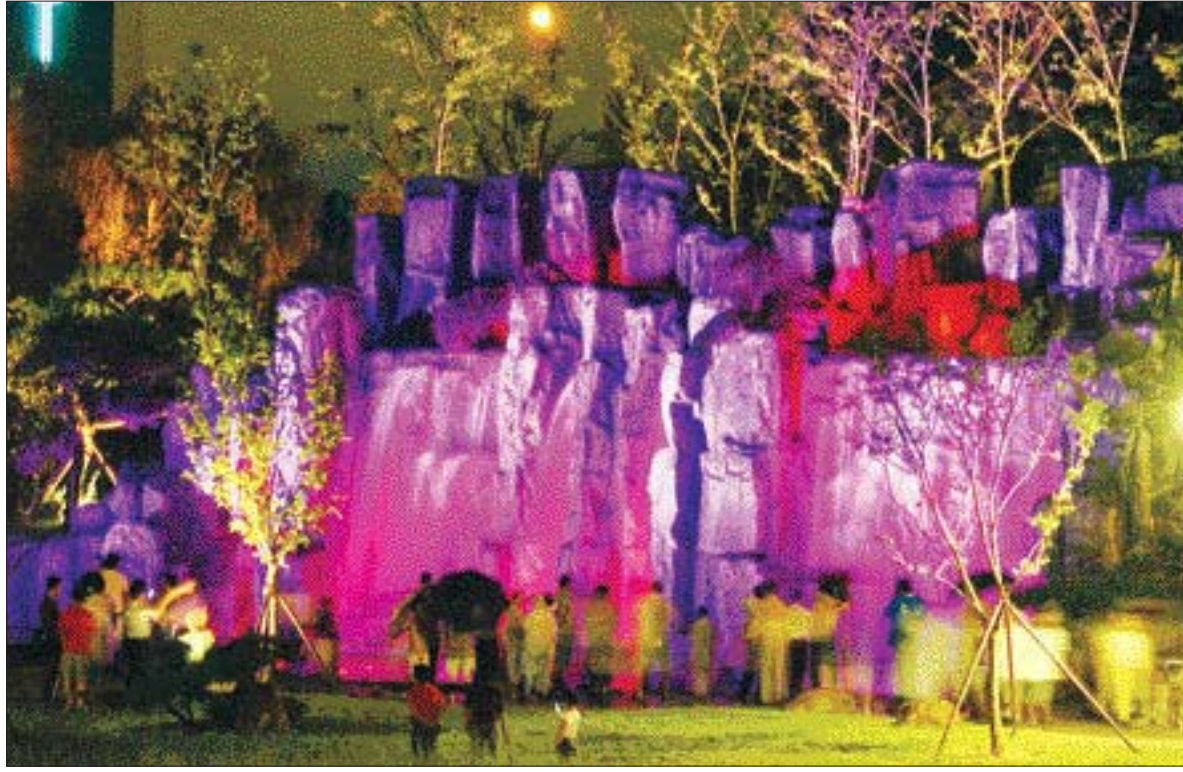
피해어선들은 일본 또는 중국의 배

타적경제수역(EEZ)에서 갈치잡이를 하는 9.77~29t급 연승어선들이다.

전소된 29t급 어선 1척에는 아직 위관되지 않은 갈치 190상자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화재에 따른 피해액은 8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소방서 측은 추산했다.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lkpc.oc.kr
한국언론진흥위원회 불만처리지원센터



'두물머리' 서석대 폭포 개장

광주천과 서방천이 만나는 광주 북구 동운동 광주천 '두물머리' 나무에 무등산 서석대를 본 뜬 인공폭포와 정자 등이 조성돼 19일 문을 열었다. 광주시가 광주천 자연정화사업의 하나로 10억원을 들인 서석대 폭포는 높이 5.1m·길이 40m 크기로 14개의 조영이 가능한 아경을 연출, 광주의 새 명소가 될 전망이다.

학교 앞 문구점·편의점 여고생 절도 '속얹이'

최근 여고생들이 학교 주변 문구점과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남학생들이 운동과 게임 등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스트레스 풀기 놀이가 된 것이다. 이들 여고생들은 훔친 액세서리를 몸통 치장한 뒤 버섯이 매장을 다시 찾는 등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S여고 앞 H마트 주인 박모(48)씨는 4~5명의 여고생이 한꺼번에 찾아오면 긴장부터 된다. 무더기로 몰려와 "OO과자를 찾아주세요""아이스크림은 뭐가 맛있느냐"는 등 정신없이 떠돌다가 몰래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마트 곳곳을 돌아다니고 물건을 고르면서

주인의 감시를 따돌린 뒤 과자와 음료수 등을 옷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간다.

박씨는 "물건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친구들끼리 몰래와 범죄행위 의식 않고 스트레스 해소하듯 적절하면 악성 소문

前 도체육회 사무처장 '살인죄' 징역 15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학준 부장판사)는 전남도 체육회 간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전(前) 전남도 체육회 사무처장 정모(60)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5.5cm나 되는 흉기에 반창고까지 감아 범행을 준비하는 등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잔인하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태도 보다는 '범행이 기억나지 않고, 술에 취해 발생한 사고'라는 공색한 변명 등 사건을 부인하고 있

짜리 머리핀을 도난당했는데 의심을 하고 있던 한 여고생이 버섯이 머리에 핀을 끼고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직접 사가지고 온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봤지만 당당하게 가게문을 들어서서 학생을 보고 말문이 막혀 버린 것이다.

남구 D여고 앞 S마트는 절도를 막기 위해 지난달 CCTV를 했지만 한 달도 안돼 무용지물이 됐다. 여고생들이 물건을 손에 들고 가게 내부를 서성거리다가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골라 가방이나 옷 안에 담고 있어 증거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구 S여고 앞 P문방구의 경우 절도 액수가 하루 평균 4만원 가량, 동구 J여고 앞 H서점도 볼펜이나 액세서리 등 하루 5만여원 상당의 학용품이 훔쳐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S마트 주인 한모(52)씨는 "몰래 물건을 가져가면서 들리지 않은 학생들이 주위 친구들에게 훔치는 법을 알려준다더라"고 걱정했다.

동구 S여고 앞 P문방구 업주 김모(여·44)씨는 지난달 29일 3만원

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제46회 전남도민체전'이 열린던 지난 4월26일 밤 9시께 강진읍 남성리 H식당에서 전남씨름협회 전무이사 신모(51)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전남씨름협회 회장 백모(57)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나원침 (7313) 김장두



다들 물어봐 신협재 KCC

DS건설(주) KCC청도, 영도, 도예 대학원

KCC광호, 시스텔광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신리온, 매인도 대학원

실리온·방수막·점착제·타이브

만원버스 승차행 CCTV에 찍혀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승차행하고 달아나 50대가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에 얼굴이 찍혀 경찰에 달미.

○19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최초(52·광주시 광산구)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을 지나던 '문흥 18번' 시내버스 내에서 광주 K여고 3년 A(18)양의 은밀한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

○최씨는 A양이 큰 소리를 치자 버스에서 내려 도주했는데, 경찰은 범행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한 후 "최씨가 신가동 버스 정류장에 자주 나타난다"는 제보를 받고 검거.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출·퇴근 길 혼잡한 버스를 골라 탄 뒤 정류장 도착시간에 맞춰 추행을 한 후 달아나는 수법을 써왔다"고 설명.

광주 첨단지구 폭스존아울렛이 수입명품아울렛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수입명품 30여개 브랜드 입점 확정!

이제, 수입명품아울렛에서 명품매장의 새로운 주인을 모십니다.

무보증금

문의: 070-7430-4601~9